



사진 · 박홍순

대안공간 루프에서 열린 <김상균전>에 출품된 <인공낙원>

김상균展

5.5~30 대안공간 루프

<인공낙원(人工樂園)>이라 명명한 건축조각들은 노모스/피시스(nomos/physis)의 논쟁처럼 대립적이다. 노모스가 단순히 '법'과 '관습'의 의미로 제한되지 않고 '인위적인 것'을 뜻할 때 사회, 문명, 제도 등의 문제도 그 안에 포함된다. 그렇다면, 인공낙원으로서 있는 김상균의 조각들은 노모스의 성체를 드러내는 판타지이다.

고대 그리스 자연철학자들의 피시스 개념에서 볼 수 있듯이 '자연(Nature, 본성)'은 동양의 '自然'과 같은 맥락을 공유했다. 이때 노모스와 피시스의 개념은 상보적이며 개념의 전이를 구축한다. 그러나 소피스트 이후 인류는 노모스의 확장과 권력화를 성취하는데, "법은 좋은 삶을 위해 필수적" "사회생활은 법에 대한 복종 없이는 불가능"과 같은 계몽적 문구가 이를 방증한다.

김상균의 작품에선 서구철학과 문명이 어떻게 노모스와 더불어 진화해 왔는가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그의 건축은 하나의 법이요 질서이기 때문이다. 즉, 법적 질서가 없는 건축의 구축은 불가능하며, 통제와 규율과 억압을 위한 권력적 카르텔이 디자인의 중요한 변수가 된다. 모든 창은 밖이 아닌 안을 위해 존재한다. 밖의 표면은 마치 죄수를 가두는 수용소의 창틀처럼 극히 제한적 구멍이 있을 뿐이다.

또한, 근대 이후 도시문명의 건축물이 시대적 층위의 미학과 어떠한 맥락을 갖는지 알기 매우 어려워졌다는 사실이다. 많은 건축물이 양식과 형식, 주류 혹은 비주류 건축사 어디에도 없거나 아니면 어디에나 있는 건물들로(그것이 창의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세워지고, 국가와 문명 간의 역사적·전통적 계승이나 전승이 섞이고 빠지면서 그야말로 혼성(hybrid)이 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새로운 건축도시가 들어설 때마다 삶의 역사를 형성했던 지정학적 토대가 '깡그리' 파헤쳐지고 있으며, 그 내부는 유비쿼터스의 디지털 세계로 급속히 변환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노모스와 유비쿼터스의 절묘한 디지털 하이브리드 개념이라 명명해야 할까? 그런데 우리는 김상균의 인공낙원이 미래 도시의 환상이거나 화려한 모델하우스로 제시되지 않고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 그의 건축은 <블레이드 러너>의 그것처럼 미래적이지만 암울하다. 그의 작품은 창조주 인간에 대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메시지를 발산하는 듯 박제화된 건축도시의 맨얼굴로 우리를 응시하고 있다.

김종길 · 미술비평